

기름값 부담에 중고차 ‘찬바람’... 디젤車, 천덕꾸러기 신세

고유가·고금리에 중고차 직격탄
전기차 제외 가격 하락 잇따라
경유 장점 사라져 디젤 가격 ‘뚝’

국내 중고차 시장이 기름값 고공행진 여파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디젤(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수요와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차량용 반도체 대란으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서 지난해부터 중고차 시장은 호황기를 맞았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일부 중고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매 즉시 바로 차량을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유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은 신차 출고 지연 여파와 고유가, 고금리 부담으로 디젤차를 중심으로 큰폭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가 국내 중고차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6월 시세는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가 예상된다. 전체 모델 중 시세 하락 모델의 비중은 55%



서울의 한 중고차 시장.

로 전월 대비 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산차 모델의 경우 시세 하락 예상 모델의 비중은 56%로 나타나 전월(50%)대비 증가했다. 수입차 역시 시세 하락 예상 모델 비중이 53%로 전월(46%)보다 늘어났다.

특히 대형과 고급 차량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산차 중에서는 기아 카니발R과 제네시스 G70가 전월 대비 각각 5.6%와 4.9%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중에서는 렉서스LS500 5세

대가 3.9% 하락할 전망이다.

유종별로 보면 전월 대비 평균 시세가 휘발유차는 0.7%, 경유차는 1.2%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는 전월 수준의 시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모바일 중고차 플랫폼 ‘첫차’가 지난 달 중순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4주간 첫 차육선에 출품된 상위 10개 모델의 순위와 매입 시세를 분석한 결과 경유차의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첫 차육선 경매장에 가장 많이 출품된 기아 싼렌토는 최고 5000만원에 매입됐으며 전월 대비 1.3% 하락했다.

수입차 부문에서는 가장 입찰이 활발했던 모델인 E-클래스 5세대가 9.2% 떨어져 큰폭으로 하락했다. E-클래스 5세대의 경우, 엔트리 모델 출품량이 30% 가량 증가하면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 유지비가 부담스러운 수입차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포착됐다. 특히 경유 가격이 치솟아 디젤 수입차 모델들의 가치가 점차 저평가되는 추세 역시 반영된 것으로 회사는 분석했다.

K Car 관계자는 “자동차 공급 부족과 구매 심리 위축으로 중고차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가 디젤 차량을 중심으로 시세 조정이 이어지는 상황”

이라며 “신차 가격이 인상되는 이슈가 있는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토허브셀가 조성봉 대표는 “6월은 보통 중고차 성수기 끝물 시즌이지만 고유가 상황과 신차 출고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중고차 시장도 계속해서 침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경유·휘발유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연일 최고가 신기록을 쓰고 있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L당 2100원을 돌파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각각 2104.63원, 2112.50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11일 2064.59원을 기록하며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 기록(2012년 4월 18일 2062.55원)을 갈아치웠다. 국내 경유 가격은 이미 지난달 12일 1953.29원을 기록하며 기존의 최고가(2008년 7월 16일 1947.74원)를 경신한 데 이어 한 달 넘게 날마다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경유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 ‘비스포크’ 고객 1500명 초청 팬파티

출시 3주년 기념 ‘쌈머 바캉스’
조리기기 체험, 아티스트 공연도

삼성전자비스포크팬들이 모여 바캉스를 즐겼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비스포크 팬파티’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비스포크 출시 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다. 비스포크 가전 소비자 1500여명이 초청을 받았다.

행사 주제는 ‘쌈머 바캉스’로, 비스포크 팬과 함께 취향 맞춤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다양한 전시존도 새로 선보였다. 특히 ▲호텔 라운지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리유케어 가전과 에어케어 가전을 체험할 수 있는 ‘비스포크 라운지’ ▲휴양지 느낌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냉장고와 신개념 조리기기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비스포크 3주년 ‘비스포크 팬파티’를 열었다. /삼성전자

큐커를 체험하며, 무알콜 칵테일과 간단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비스포크 바’와 ‘비스포크 큐커 바’ ▲슈퍼 프리미엄 가전으로 호평 받고 있는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전시존은 특히 참가

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이어서 박문치·카더가든·에픽하이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과 함께 비스포크 팬파티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 AI 연구, 국제학회서 성과 인정받아

AI 연구원 출범 2년 만에 기술 입증

LG가 초거대 인공지능(AI) ‘엑사원’을 활용한 성과를 본격화하고 있다.

LG AI 연구원은 19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AI 학회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서 전구 논문 6편과 워크숍 논문 1편을 발표했다.

CVPR은 컴퓨터 비전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회로 알려져 있다. LG는 지난해 논문 1편을 발표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초거대 멀티모달 AI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과 관련한 단독 연구 논문 포함 2편을 ‘구두 발표’에 선정시키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두 발표 기회는 학회에 제출된 논문 중 4% 이내에 해당하는 최상위 평가

를 받은 연구에만 부여된다. 학계 중심의 산학 협력 논문들이 주류인 AI 학회에서 개별 기업이 단독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LG는 CVPR을 통해 인재 확보 노력도 지속한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LG CNS 등 LG 주요 계열사 5곳은 LG AI 연구원과 함께 CVPR 통합 부스에서 글로벌 AI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각사의 최신 AI 기술 시연과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출범한지 불과 2년만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LG AI 연구원은 초거대 AI ‘엑사원’을 개발해 멀티모달 AI 현실성을 입증한 바 있다.

/김재용 기자

기아 ‘스포티지 PHEV’, 獨서 엄지척

독일 車 전문지 평가서 1위 올라

기아의 스포티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가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평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19일 기아에 따르면 스포티지 PHEV는 최근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르트’와 ‘아우토빌트’가 실시한 PHEV 차량 비교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기아는 ‘2022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된 EV6에 이어 스포티지 PHEV까지 호평 세례를 이어가며 높은 친환경차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르트 최근호에 게재된 이번 비교 평가는 기아 스포티지, 도요타 라브4, 오펜 그랜드랜드, 볼보 XC40 등 유럽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4개의 PHEV 차량을 대상으로 ▲바디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가지 평가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스포티지는 7가지 항목 중 편의성, 주행, 경제성 등 3가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총점 649점으로 615점을 기록

한 라브4를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그랜드랜드는 603점, XC40는 566점으로 뒤를 이었다.

스포티지가 최고점을 획득한 편의성 부문은 ▲서스펜션 편의성 ▲전석 시트 편의성 ▲후석 시트 편의성 ▲멀티미디어 ▲공조시스템 ▲실내소음 등 총 8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또 스포티지는 ▲주행 역동성 ▲핸들링 ▲스티어링 ▲회전반경 등 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주행 평가 부문과 ▲판매 가격 ▲잔존가치 ▲수리 비용 ▲연료 비용 등 8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경제성 평가 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양성운 기자

출장 결과물 공유 ‘경영전략회의’ 주목

» 1면 ‘유럽 출장길서’서 계속

이 부회장은 귀국길에 현실의 어려움을 확인한 출장 소회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시장에 여러가지 혼동과 불확실성이 많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국내보다 더 크게 느꼈다”며 글로벌 위기감을 다시 한 번 공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인재 확보와 유연한 조직, 그리고 기술을 꼽았다.

이 부회장의 출장 경험은 실제 경영에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올해 리스크 전담 조직 ‘사업위기 관리(BRM)’을 만들었으며, 오랜만에

개최하는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도 중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의미 있는 M&A는 속제다. 업계에서는 부회장이 이번 출장에서 M&A와 관련한 행보도 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부회장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유력한 분야는 전장 반도체다. NXP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미 불발된 적이 있는데다가 치솟은 몸값이 문제. 때문에 AI 등 다른 분야에서 M&A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가 영국 Arm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지만, 단독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재용 기자